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창업상담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사회적응 교육, 창업워크숍 등

직업훈련

위탁 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사이버 교육

자격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멘토링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6층
(근화동)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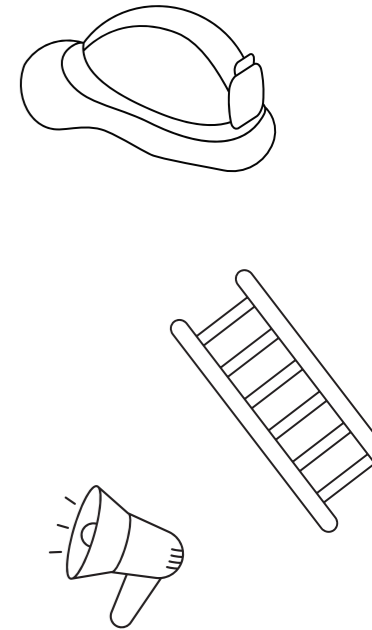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인친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03 Vol. 193
2022 MARCH



화합

어깨를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힘

희망어록

용서와 관용으로 이끈
화합, 류성룡

직장인 탐구생활

똑똑한 통장관리
10년 직장생활의 첫걸음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o Be With You

협력은 우리 종의 생존에 핵심이다.
우리의 진화적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종이 멸종하는 와중에
호모 사피엔스를 번성하게 한 것은 초강력 인지능력이었는데,
바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인 친화력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중에서

올림픽 때면 '화합의 장'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리스에서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 대신 달리기나 투창, 원반, 레슬링 같은 종목으로 힘을 겨루고 단합을 꾀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올림픽이었습니다. 현대 올림픽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성별과 나이, 인종, 종교, 사상을 뛰어넘어 땀을 흘리며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화합의 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쪽에 치우치거나 반쪽짜리 또는 분쟁과 갈등의 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78억 인구가 한데 어우러져 화합을 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블의 영웅들이 모두 등장했던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를 보면 같은 뜻을 가진 영웅들조차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신념은 같지만 기준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함께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갈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갈등을 뛰어넘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화합의 전제조건입니다.

리:스펙 제대군인

03 Vol. 193
2022 MARCH

화합,
어깨를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힘



08



12



24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권 193호
발행일 2022년 3월 3일
발행인 황기철
발행처 국가보훈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문화공감(02-2266-1897-8)

f www.facebook.com/mpvakorea
t twitter.com/hun2day
y www.youtube.com/user/mpvakorea
b blog.naver.com/mpvalove
i mpva.tistory.com
i www.instagram.com/bohun_story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자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OW TO START

- 06 **생각, 펼침**
‘화합의 전사’ 제대군인
- 08 **당신은 히어로**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는 힘, 박자혁
예비역 육군 중사
- 12 **함께 걷는 길**
은퇴가 아닌 이직,
IT전문가의 인생2막
(주)케이씨에이
- 16 **반갑다 새 인생**
당당하고 멋진
해군출신 해양경찰관!!
- 18 **희망어록**
용서와 관용으로 이끈 화합, 류성룡

HOW TO WORK

- 20 **성공취업 X파일**
취업 컨설턴트가 전해주는 성공 취업을 위한 노하우
면접, 나를 세일즈하는 시간
- 22 **세상에 이런 일이**
빅데이터와 AI 축구의 결합
‘에임브로드’
- 24 **선배의 비밀노트**
‘일’이 아닌 ‘업業’을
갈고 닦는 시간
남상열 예비역 육군 원사
- 28 **별별직업탐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스마트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다
금융서비스 산업
- 30 **미디어 속 직업 읽기**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과 큐레이터

HOW TO LIVE

- 32 **직장인 탐구생활**
똑똑한 통장관리
10년 직장생활의 첫걸음
- 34 **주말에 여기 가게**
다국적 음식의 향연,
용리단길 & 전통주
- 36 **라떼는 말이야**
오타, 그때는 웃지 못했지만!
- 38 **책심보감**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 40 **V-뉴스**
이 달의 자격증 & 센터 소식
- 42 **감성충전 Trip**
움트는 봄 마음도 틔우다

‘화합의 전사’ 제대군인



“하늘이 내린 기회는 땅이 유리한 것만 못하고 땅이 유리한 것은 사람이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 하(下)편에서 맹자는 화합을 강조하는 말로 포문을 열고 있다. 맹자는 군대의 예를 들면서 하늘의 때, 땅의 이로움, 인간의 화합을 승패의 관건으로 꼽았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씨, 방위, 날씨의 길흉에 견주어 하늘이 내린 절호의 때를 맞는 것도 필요하나 성이 높고 못이 깊으며 병기와 갑옷, 군량이 비축된 땅의 유리함만 못하고, 땅의 조건이 아무리 유리하다 해도 사람 간의 화합이 없으면 끝내는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난공불락의 상대를 함락시키는 데는 하늘의 때와 땅의 유리함에 앞서 사람들 사이의 융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화합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서로 간에 발생하는 차이에 불만을 품거나 갈등과 분쟁을 빚기 쉽다. 또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포용하며 화목하게 화합하는 모습보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편을 나누어 따돌리고 제압하려는 모습을 더 빈번하게 발견하곤 한다. 사람들이 지닌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면모로 인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합을 애써 강조해왔는지도 모른다. 애초에 화합이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화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론하거나 당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합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화합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Survival of the Friendliest)』에서 협력하고 소통하는 친화력이 종의 생존에 필수적이라 하면서 사나운 늑대나 침팬지보다 정서적 교감과 소통에 능한 개나 보노보의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통념과 상반된 것으로 힘의 논리에 의한 경쟁과 지배에 관한 오랜 신념에 도전한다. 이들은 인간이 살아남는 것은 더 많은 적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편, 친화력 이면의 외부 집단을 향한 혐오와 비인간화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사실 화합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직과 대상 가운데 하나가 군대와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군이라는 특수한 체계 자체가 적을 상대로 하며 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유지하여 증강하는 것을 절대 절명의 사명으로 표방하기에 화합과는 영 거리가 먼 것 같다. 오히려 화합과 정반대의 구도와 입장에서 긴장과 갈등, 반목, 경쟁, 싸움, 승리를 전제로 존재하고 화합과 상충되는 과정과 목표를 향해 기능하고 작동하는 집단이 곧 군대고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나, 생각해보면 화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군이 역설적이게도 다른 어느 조직보다 화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시간 전시에 대비해야 하는 군대와 군인만큼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집단도 없을 것이다. 한 치의 오류나 지체도 용납될 수 없는 군의 삼엄한 위계질서와 임무수행의 작동원리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칙만큼이나 그 규칙을 준행하는 구성원 간의 존중과 소통을 토대로 한 화합의 정신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집단생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사생활의 제한과 침범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 양보, 협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 이것이 빠진 군 생활은 하루 속히 벗어나고픈 악몽의 시간이 된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도 불편과 불쾌를 겪고 있는 동료에게 편의를 양보하고 힘들어 하는 동료의 집을 나눠지며 화합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이기보다는 전쟁, 파괴, 살상을 방어하고 억제하며 저항하기 위한 평화와 화합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명하달의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대 문화 속에서도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비결은 바로 구성원 간의 응집, 단합, 결속, 친화, 융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족하거나 결여될 경우에 다른 어느 조직보다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곳도 바로 군대다. 한편 군 복무가 대한민국 남성의 필수 의무인 것과 군에서 경험한 화합의 경험을 밑천으로 사회로 진출할 수많은 제대군인의 역할과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제대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군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가 속한 사회에서 화합의 촉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제대군인이라는 지위는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화합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복무한 이력을 발판으로 엄중한 군 생활 속에서도 숨통을 트이게 하고 활력을 갖게 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화해,

협력, 친화, 화목을 바탕으로 한 어울림과 조화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화합의 가치와 기능, 영향을 군대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실히 경험한 예비 전사의 경험을 사회에 선하게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설사 내가 복무한 군대에서 화합을 이룬 긍정의 경험보다 화합이 깨진 부정의 경험을 더 많이 했다 하더라도 화합의 가치와 기능을 깨닫게 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멋진 제대군인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군 복무 경험은 없지만 군 경험이 화목을 도모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친구의 오빠가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식구들을 챙기느라 본인 식사는 뒷전이었던 어머니께 “엄마도 어서 오셔서 같이 드세요”라고 해서 가족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다섯 남매 중에 부모 속을 가장 많이 썩힌 철부지 아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흠어진 가족을 연결하는 화합의 용사가 돼 돌아온 것이다. 필자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군 제대 후 복학해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은 학년 대표를 맡게 됐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나고 냉담한 후배들과 화합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군 시절을 떠올리며 인내하고 술선수범해 먼저 배려했더니 후배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협조하게 된 일화를 지켜보기도 했다.

공자는 『논어』 자로(子路)편에서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화합하는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인물로, 소인은 서로 같으면서도 화합하지 못하는 ‘同而不和(동이불화)’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있다. 화합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소하고 가까이 있는 것일 수 있다. 한데 우리의 일상은 화합, 융화, 평화보다 대립, 갈등, 분열이 만연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합을 가로막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화합을 깨는 길로 가지 않고 화합을 이루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길이 화합의 길이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제대군인들이 자랑스러운 ‘화합의 전사’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질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45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는 힘 박자혁

예비역
육군 중사

불길이 치솟아 오른다. 다급한 119 신고 후 몇 분이 되지 않아 황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관들이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들을 구해낸다. 누구라도 패닉에 빠지기 마련인 화재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소방관의 길을 택한 한 사람, 박자혁 소방교를 만나보았다.



서로의 등 뒤를 지키는 신뢰

7분.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소방관들은 20~25kg에 달하는 방화복을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착용해야 한다. 이후 전쟁터와 같은 현장을 파악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누군가를 구조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조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그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와 호흡이 중요하다.

“소방 특성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뒤엉켜 있는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며 신속하게 요구조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호흡이야말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동료와 요구조자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사실을 삶 속에서 되새긴다.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소방 현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나 동료들 간에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자혁 소방교. 서로 간의 신뢰와 호흡이야말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동료와 요구조자의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사실을 과거의 군 생활을 통해, 그리고 현재의 소방관 생활을 통해 박자혁 소방교는 늘 삶 속에서 되새긴다.

어릴 적 어두운 밤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집결지로 이동하는 현역 군인들의 모습에 반하여 경찰특공대와 소방 구조대원을 꿈꾸게 된 박자혁 소방교는 특전사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군에서 다양한 훈련들을 소화하며 그는 서로 신뢰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다고.

“군에서 배웠던 고등산악훈련에서의 로프 기술, 해상훈련에서 배웠던 수영 및 스쿠버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키우게 된 인내심과 끈기, 열정까지. 모든 것이



전역 후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에서 얻게 된 인내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덕분에 소방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지가 되는 진정한 화합

현재 박자혁 소방교는 유튜브 채널 ‘불타는 나방’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를 주로 하던 인천 구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7년 강원도 철원소방서로 오면서 화재진압을 주업무로 하는 센터로 배치를 받으며 소방 관련 공부를 하게 되면서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다가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맞는 정보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처럼 현직 소방관이어도 구조대원으로서 취득해야 할 자격증 같은 것에 대해서 정보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동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얻은 첫 수익금을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계획이라고 한

다. 구조대원으로서 현장에 있는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하는 동료들이 다치지 않길 바란다는 박자혁 소방교. 현장 활동을 하다보면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먼 미래나 꿈을 막연하게 꾸기보다 현재에 충실하고자 한다.

“저와 동료들은 구조대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작은 계획을 세워본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내실있게 좋은 정보들로 채워나가면서 전국의 소방관들과 미래소방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제대군인 선후배들에게 조용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 해도 군생활 당시의 어려운 훈련들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과 도전 정신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꼭 이루어 낼 것입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일, 자신있는 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면 하고자 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창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해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선후배님들 파이팅입니다.” ㉮

은퇴가 아닌 이직, IT전문가의 인생2막

정보체계 감리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다. 작게는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크게는 국가간 정보 경쟁까지, 정보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군 곳곳에서 정보 관리와 설계를 담당해온 전문가들이 제대 후, 그동안의 역량을 새롭게 꽃피우고 있다는 쉼케이씨에이를 찾아갔다.



박양순
수석

전종호
이사

곽민혜
수석

김영우
수석

Q (주)케이씨에이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전충호(이하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국방전산정보원, 과학화전투훈련단 그 외 군사, 사단 등 육군 예하 야전부대 전 산실을 두루 거치며 26년간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다. 전역 후 (주)LGCNS에서 국방정보화사업을 진행하다 정보화전략계획 (ISP) 및 정보화사업관리 위탁용역분야의 확대에 따라 2019년 부터 (주)케이씨에이에서 국방사업본부 국방사업팀을 꾸려가고 있다.

김영우(이하 김) 1994년 공군 학군21기로 입관, 정보체계의 개발 및 운영관리, 다수의 정보체계 개발사업에 사업관리 담당자로 근무했다. 오랜 전문경력으로 전역 전 다양한 업체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았으나 군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관리 (PMO) 업무를 하고 싶어서 (주)케이씨에이에 오게 되었다.

박양순(이하 박) 35년간 해군장교로 복무했다. 해군본부 및 연합사의 M&S 분야와 해군 작전계획 및 전술훈련 등 작전 분야에서 근무했다. 제대 후 한국해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박사 과정과 KG IT BANK학원에서 'C 및 C++ 코딩'을 공부하던 중 당시 지인 소개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

곽민혜(이하 곽) 육군 여군 46기로 정보통신병과에서 20년간 근무했다. 야전부대 전산실 실무에서 사이버사령부 취약점 평가업무 담당, 육군 전투지휘훈련단에서 M&S 모델 모의논리 연구 등 대부분 전산장교로 업무를 수행했다. 제대 후 M&S 업무 경험이 있는 전산장교로 제대군인지원센터 추천을 받아 (주)케이씨에이에 합류하게 됐다.

Q 취업하기까지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

김 대위 시절 체계개발업체와 회의 시 정보통신 기술 및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껴 개발업체와 전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또 소령으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방대의 정보체계사업관리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사업관리 경험에 이론적인 사업관리 기술 및 지식이 더해져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박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신감은 있었지만, 사회에 나와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데 대한 걱정은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바깥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받았다. 각종 콘텐츠로 구성된 교육과 특히 이력서 작성법, 심층 인터뷰 방법에 대한 사례 교육이 유익했다.

(주)케이씨에이

국내 최초 정보체계 감리법인으로 정보체계 및 정보통신 감리, 정보화 컨설팅(ISP)과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정보화 컨설팅 전문업체. 국방사업본부 PMO 파트 25명 중 22명이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이다.



Q 현재 회사생활은 어떠한가? 군 복무 경험이 회사 생활과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전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우리 국방사업본부는 국방 정보화분야 라이프사이클인 사업 소요제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단계의 ISP사업과 집행단계에서의 PMO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군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국방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현역들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 군인에게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

박 평상시 관심 있던 분야이고 내용도 해군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일이 낯설지 않다. 군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자책만으로도 아주 보람 있고 즐겁다. 무엇보다 제대군인 동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없었다. 말이 잘 통한다.

곽 군에서 장교는 한 부대 또는 보직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면 이동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길러진 덕분에 현재 직장에 취업하는 것 역시 보직 이동이라고 생각했다.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컸다. 현재 군 정보체계 성능개량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군에서 다년간 수행했던 정보체계 사업관리 경험과 역량이 큰 도움이 된다.

김 군에서 했던 업무를 전역 후에도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군복무 중 사업관리 업무를 하며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당장은 나와 관련 없는 분야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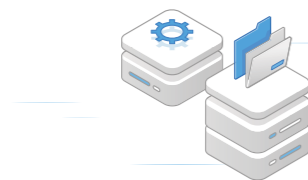
Q 전역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박 군 바깥의 사회생활이 쉽지는 않다. 다만 언제 어디서든 충성심이라는 기본원칙을 지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조직을 우선 생각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군에서 체화된 충성심과 신뢰 관계는 군 안팎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덕목이다.

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을 믿는 느슨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군에서 기른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길 바란다.

김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하고 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한편,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전문지식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다. 지금은 불필요할지 모르는 경험과 지식이라도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또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분야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성에 맞는 분야로 나아가길 바란다.

전 현역 시절 본인의 병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업무 관련 유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에 성심을 다하면 군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리라 생각한다. 군 생활하는 동안 전역을 위한 준비는 성실한 군 업무의 수행임을 꼭 전하고 싶다. 제대 후에는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길 바란다. 군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 45



당당하고 멋진 해군출신 해양경찰관!!

2006년 7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빗보증으로 집안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지는 모습에 돈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낮선 해군에 입대했다. 배 많이 타고 진급 잘된다는 전담이라는 직별을 얻어 나름 인정받고 안정된 직업군인이라는 타이틀에 9년 가까이 해군에 몸담았다. 그러나 추자도에서 야간 당직사관을 할 당시 원인 미상 헬기 추락사고로 동기를 잃는 등 큰 트라우마를 얻어 전역을 결심했다. 막상 전역을 앞두고선 취업이 고민이었지만 서른이 되면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서른이 되기 3개월 전 전역을 실행했다. 해군처럼 바다에 종사하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상선 등 선박을 이용한 직업에 관심이 많아 해양경찰을 준비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 모집이 지연되면서 공부를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일단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전역 후 불확실한 미래와 교육비는 부담이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자기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친절한 상담사는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 상담 고민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걱정해주며 지도해줬고 금전적인 부분을 교육 수당으로 해소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딱딱한 군대에 있다 보니 국가보훈처도 형식적으로 날 대하고 군대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한 내 판단은 틀린 것이었고 때로는 형처럼, 아버지처럼 잦은 전화로 근황을 묻는 등 지금도 그 상담사분이 아니었으면 쉽게 좌절하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을지 모른다. 불투명한 미래와 명확한 계획 없이 전역을 준비하는 전역자는 가까운 지방보훈청을 찾아 상담과 지원을 받으면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MOU를 체결하여 대형선사 LNG선을 탈 수 있게 해양수산부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와 교육을 병행하며 대형선사인 현대상선에 입사할 수 있었다. 사실 사기업 선박 승선을 앞두고 해양경찰과 상선 사이에 진로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20대에 못해본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기에 일단 한국과 예멘을 오가는 상선에 몸을 실었다. 한국을 떠나 예멘으로 항해하는 16일 동안 해군과 상선은

해기사란?

선박의 운항, 선박 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

“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미래의 나도 오늘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이질감을 매일 느꼈다. '해군 함정을 많이 탔으니 상선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오만은 첫날부터 흔들렸고, 상선에 대한 지식 없이 승선하여 궁구하나 찾지 못해 허둥지둥 대며 첫날부터 꾸중을 들으니 전역이 처음으로 후회됐다. -172도 액화LNG가스가 터지면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는 선배들의 말에 늘 긴장 속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적응하려고 버텼다. 7~8개월을 휴가 없이 한국과 예멘만 오고 간다는 선장의 말에 더욱더 상선의 해기사가 아닌 해양경찰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하던 중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전복된 어선에 외국 선원들이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연히 구조를 할 줄 알았으나, 화물이 늦게 도착할수록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발주처의 말에 선사는 고민을 했다. 결국 뒤늦게 그들을 구하러 가긴 했으나 그때 비로소 느꼈다. 20대 대부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다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구조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바다를 지켰던 나와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사기업은 맞지 않는다고. 결국 나는 짧았던 한 달을 뒤로하고 퇴사를 했다.

다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양경찰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가 가장 머리가 맑고 편안했던 시간 같다. 미취업 상태지만 노력하면 된다는 확신과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흔들림이 없었으며 부모님도 명확한 목표에 대해 지지해주셨다. 2015년 5월, 해양경찰 해군특채 면접시험이 치러질 여수에서 특채를 준비하는 선·후배들과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며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시험 하루 전날 아침 뉴스특보로 해경 해체 발표가 나왔고 적게는 1년, 많게는 3~4년을 준비한 전역자들은 실망감과 무기력으로 말을 잃었으며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잠을 싸야 했다. 공통된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도 돌아가야만 했고 또다시 야간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일상으로 돌아와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담당 상담사를 찾아가 교육 훈련수당을 지원받으며 해경에 필요한 해기사, 전파기통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를 계기로 열정이 살아나서 면접과

체력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그해 10월 재개된 해군특채 해경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해경에 들어와 보니 모든 군 생활과 업무들이 해경 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전담업무 역시 인정받아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직원으로 인식되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교육원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해경에서 부부 경찰관으로 종사하며 내 집을 장만하고 낱닭은 아이까지 낳으며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제대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여 대형선사에 취업해 상선도 승선해 보고, 많지는 않아도 6개월간 지원금도 받아 전역 후 부담도 덜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수당까지. 참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도 보훈처 홈페이지를 보면 전역 군인들을 위한 취업 모집 공고, 각종 이벤트, 일자리 소개 등 나라를 위해 애쓴 군인들에 대해 소홀하지 않고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뿌듯하고 내 젊음을 바쳤던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리스타트 챌린지 공모 문자를 받은 날, 잠들려는 순간 나를 상담해주시던 그분이 떠올랐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용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뚜렷한 계획 없이 전역 후 방황하고 있다면 중장기 제대군인으로서 처우를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꿈꾸길 바란다. 군 생활이 그저 낭비였고 후회라 생각하지 말고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더 큰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해양경찰인 현재의 나는 해군이었던 과거의 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 과거의 나를 되돌릴 순 없지만 현재의 나는 미래를 위한 출발선 위, 하나의 시작점에 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바로 잡고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미래의 나도 오늘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45



류성룡 柳成龍



용서와 관용으로 이끈
화합

“

외부의 적과는 싸워도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마라.

내 생각만이 옳다는 신념은 전쟁을 만들고 분쟁을 만든다.
신념은 가지되 강하게 주장하는 순간 부딪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서애 류성룡 인생십계명 중에서

징비록의 저자이자 조선 선조 때 문신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서애 류성룡. 그는 퇴계 이황의 문인이면서 임진왜란 때 행정과 군사를 총괄한 일등 공신이다. 선조가 즉위할 당시는 사림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등 당쟁이 일어났던 시기다. 이후에도 계속된 당쟁으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하는 등 선조의 집권 내내 붕당의 대립으로 조정 안팎이 시끄러웠다. 그 와중에 195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온 나라가 전쟁으로 휩쓸리며 류성룡은 결코 평탄치 않은 정치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동인으로서 서인파도 두루 친분을 나누었고, 임진왜란 때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일본 사이에서 강화 협상을 지휘하며 전쟁을 종결하였다. 물론 한 당파에 속한 몸으로 류성룡이 온전히 중도적인 길을 걸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 와중에도 동인과 서인이 서로 대립하며 내부에서부터 흔들릴 때, 안팎을 추스르고 주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 상황을 이끌었다. 또한 말년까지도 정치적 분쟁에 휩싸인 조정 한 가운데서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 때문에 그의 말년에 탄생한 『징비록』은 단순히 임진왜란을 기록한 전쟁 기록을 넘어서서 내부적으로는 당쟁이,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몰아치는 혼란 속에 그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어슬러 이끌어나가고자 했는지 잘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45



취업 컨설턴트가 전해주는 성공 취업을 위한 노하우 나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라 “면접, 나를 세일즈하는 시간”



면접을 보는 것은 나를 세일즈 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입 채용이라면 나의 가능성을 파는 것이고 경력 채용이라면 나의 전문성을 파는 것이다.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세일즈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면접전략 노하우 1 비대면 면접에 대비하는 자세

비대면 면접, 보이는 환경부터 신경 쓰자

코로나19로 취업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지원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화상 면접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면 면접과 달리 비대면 면접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보이는 화면을 근거로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장소 선택도 중요하다. 주변이 어수선하면 면접관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 배경이 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한, 음성이 면접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비대면 면접 장소의 소음 체크도 필수다. 생활 소음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소음이 적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도 최적의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와이파이 사용 시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선 인터넷 사용을 권장한다. 웹캠과 조명, 마이크 등의 장비는 고가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장비가 아니라 철저한 사전준비다. 화상 면접 프로그램 기본조작에 실수가 있을 경우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테스트를 충분히 해 숙달되도록 한다. 비대면 면접도 복장과 메이크업을 실제 대면 면접을 하듯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훈련이 필요하다

비대면 면접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시선 처리다. 대면 시에는 면접관의 눈을 보아야 하지만 비대면 면접 때는 카메라를 보아야 한다. 화상 속 면접관의 눈이나 미간을 바라보면 면접관이 볼 때 카메라 각도에

따라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 쪽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 대신 카메라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어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다. 비대면 면접도 복장과 메이크업을 실제 대면 면접을 하듯 꼼꼼하게 해야 한다. 면접관에게 보이는 부분이 상의 위주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면 면접처럼 제대로 챙겨 입는 것이 좋다.



TIP 장점을 어필하는 면접 요령

- 1 한 가지 경험으로 여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만능답변을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토론 면접 때는 자신의 의견을 어필함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2 모든 것을 잘하는 슈퍼맨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정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3 회사 비전과 인재상 등을 잘 숙지하고, 최근 이슈인 시사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생각해놓으면 면접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4 직무에 대한 면밀하고 꼼꼼한 분석을 한 후에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경험과 직무를 잘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두도록 한다.

TIP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스타일링 방법

남성 스타일링 요령

헤어스타일은 약간 짧으면서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좋으므로 면접 며칠 전에 미리 다듬어둔다. 이마가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이 신뢰를 줄 수 있으므로 면접 당일은 젤이나 헤어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단정하게 마무리한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두꺼운 볼테 안경은 피하고 얇은 금속 안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성 스타일링 요령

헤어스타일은 커트나 단발이 활동적인 이미지를 준다. 긴 머리의 경우 뒤로 묶어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하고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짙은 염색이나 강한 웨이브는 삼간다. 화장은 자연스럽고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피부보다는 약간 밝은 톤으로 표현하고 파우더로 눌러 번들거림이 없도록 한다. 눈썹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고 립스틱 색상은 너무 진하거나 어두운 색은 피한다. 액세서리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면접전략 노하우 2 좋은 인상을 위한 이미지 경영

호감 주는 인상, 자신감에 달렸다

채용 면접 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얼굴과 옷차림 등에서 풍기는 이미지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모보다 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상은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다. 무표정한 모습, 힘이 없어 보이는 눈, 지저분한 머리 스타일 등은 보는 사람에게는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자신감 있는 표정, 생기 있는 눈, 단정한 옷차림 등은 보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인의 자세와 표정, 시선 등을 여러 번 촬영해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자신감이 결여돼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단정하면서 세련되게 스타일링하라

복장은 지나치게 개성을 강조하기보다 성실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의 경우 짙은 감색이나 브라운 계열 정장이 무난하다. 붉은 색이 많이 들어간 갈색이나 밤색, 베이지색, 카키색, 검정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셔츠는 양복보다 밝은 색상을 선택한다. 흰색이 무난하고 베이지나 연한 갈색, 블루 등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셔츠 색상뿐 아니라 양복의 깃 등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두는 검정색이 단정해 보이고 어떤 색의 양복과도 잘 어울린다. 여성은 차분한 회색이나 브라운, 화사한 베이지, 검정색 정장이 무난하다. 무릎 길이 스커트 정장이 좋으며 활동적인 직업 여성의 느낌을 주는 바지 정장도 괜찮다. 정장은 심플한 라인으로 고르고 복장색을 제한해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스타킹은 무늬가 없는 살구색이 좋고 핸드백은 정장과 같은 계열로 연출하면 세련돼 보인다. 구두는 낮은 굽에 발등을 약간 덮는 단순한 스타일이 좋다. 65

빅데이터와 AI
축구의 결합

Aimbroad

‘에임브로드’



손흥민의 축구 경기가 벌어진다. 캐스터와 해설가의 축구 중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화면에는 손흥민이 골을 넣은 상황을 AI는 공격포인트, 전술 참여도, 슈팅 수 등을 기반으로 드리블 거리를 cm 단위까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축구 네비게이션이다. 토종 AI 기업으로 빅데이터와 AI, 축구를 접목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에임브로드’를 만나보았다.



Aimbroad

Q '에임브로드'는 어떤 회사인가?

A | 에임브로드는 9년 차 된 스타트업으로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에 신규 수집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단순히 축구를 AI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OTT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그 첫 단계가 바로 AI 축구 네비게이션이다. 창업자인 장수진 대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기획실 내 정보통신 통합전산센터에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통합 업무를 수행한 ICT 전문가로 그 시절 이미 인터넷 기술 정보와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1990년대에 창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다양한 실패를 겪으며 빅데이터와 AI에 주목, 2006년 데이터 알고리즘 연구를 시작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검증과 콘텐츠 개발을 해왔고 이후 에임브로드를 창업, 현재에 이르렀다.

Q '축구 네비게이션'이란 것이 생소하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A |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의 각종 데이터를 경기 화면에 반영해 축구의 묘미를 배가시켜 주는 것이다. 실시간 자동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을 융합해 축구 AI가 실시간으로 다음 상황을 예측하여 성공 확률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2018년 10월 열린 한국-우루과이 A매치 화면에 AI 네비게이션을 얹은 영상 콘텐츠는 선수가 측면을 공격할 경우 공격 루트별 확률을 미리 보여주고, 프리킥과 코너킥을 준비할 때는 킥한 공이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를 확률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 후에는 알고리즘에 근거해 집계한 평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과 수비 등 축구 전술과 관련한 각종 유의미한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말 그대로 축구를 더 재미있게 즐기 위한 안내, 네비게이션인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AI 프로그램은 이미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에 신규 수집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콘텐츠로 바꿔 제공하는데, 그 시간은 1초에 불과하다.

Q '에임브로드'처럼 빅데이터를 다루는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 사람이 가진 역량만큼 빅데이터의 가치 크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빅데이터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빅데이터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가능하다. 관건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탐구다. 거기서 얻어진 통찰력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업적 근간은 인문학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인문학에 의한 통찰력에서 사업적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다. 또 단순히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보가 많아야 활용 가치가 많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패턴만 분석하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데이터에 대한 미래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Q 그렇다면 '에임브로드'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실현하고 싶은가?

A | 전 세계 축구시장 규모는 약 1천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디지털화는 가장 더딘 분야다. 그만큼 사업 가능성이 풍부하다. 우리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포함해 약 5천 경기 이상의 축구 AI 데이터를 축적했고 리버풀, 토트넘 등 명문 팀들과 영상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협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축구 네비게이션을 제공해 축구 관련 OTT 시장의 글로벌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구 네비게이션은 그 시작이고 현재 스포츠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선수와 축구공에 IoT 센서를 부착해 선수와 공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시스템 개발이다. 선수와 공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까지 성공했다. 45

‘일’이 아닌 ‘업業’을 갈고 닦는 시간

경남 진주 월아산 산자락에 자리잡은 숲 체험시설 ‘숲속의 진주’, 다양한 체험 시설 가운데서도 이곳을 찾는 유아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바로 남상열 멘토다. 목공체험지도강사로서 아이들과 자연이 주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 무척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상열 멘토. 좋아하는 일을 찾아 궁리한 끝에 취미를 꿈으로 바꾼 그를 만났다.



3월의 멘토 —
남상열
예비역 육군 원사
월아산 숲속의 진주
목공체험지도강사



❓ 목공체험지도강사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2010년 명예로운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받고 34년의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이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구요. 평소 늘 고향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에 고향인 진주에 돌아와 평생교육원과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살펴며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습니다. 자연생활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목재체험 지도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경남 진주시청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 테마시설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목공체험지도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고 2019년부터 기간제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 목공체험지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 목공체험지도강사는 목공체험공방이나 숲 체험 시설에서 일반인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구 키트를 활용해 보석함이나 목재 스피커, 스탠드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요. 따라서 목재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과 국가 자격증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목공교육원이나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일정 시간 수업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자격증은 목공지도사, 목공 DIY교육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인 목재교육전문가 과정은 2020년 산림청에서 신설한 자격증으로 목재 관련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행된 지 몇 해 되지 않았기에 교육을 수료한 전문가가 적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면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멘티



남상열 멘토

❓ 목공체험 분야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지역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고 숨은 자원인 숲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숲 체험시설을 개발 혹은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학교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목공 체험학습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대되는 만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공체험지도강사가 아니라라도 숲 해설사나 등산로 지도 안내, 레포츠 시설 안전 요원, 유아 숲 지도사 등 숲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매년 8개월 간 일한 후 일정 기간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거쳐 업무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적응 기간이 짧랐고, 그 덕분에 여유가 생긴 후부터는 제 업무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곳 시설 구석구석 제가 직접 만든 목재 장식이나 기증한 서체 작품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만족도가 높은 직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직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목재교육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후 구직 활동을 이어 나가길 권합니다.



3월의 멘토가 추천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 전문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산림청장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강의 82시간, 실습 94시간까지 총 17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업 과정은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방법론, 안전 등 4개 분야다. 교육 수료 후에는 목재교육전문가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지정된 양성기관의 공고에 따라 개별 신청해야 하며, 교육 신청과 자격 취득 등 세부 내용은 목재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은퇴 후 목공체험지도강사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 전역 후에는 꾸준히 내게 맞는 '업'을 찾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목재체험지도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문인화 과정에 등록해 수강하고 작가로 등단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진주시 초등학교 안전지도요원으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아하고 잘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목공체험지도강사로 진로를 정하고 난 후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의 교육이나 취업 정보를 상시 확인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진주)에서 분기마다 시행하는 정보교환과 취업상담에도 꾸준히 참여했으며, 고용노동부 구직 플랫폼인 '워크넷'에도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 목공체험지도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 우선 목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배우고 공부한다면 일정 기간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목재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2~3년 이상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목공체험지도강사는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친절함은 필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익숙하다면 더욱 즐겁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직무에 필수적인 책임감과 사명감 등은 제대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역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제대군인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년이 길어지면서 사회는 이제 전문자격을 통한 인재 기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전문 기술이 있다면 기회는 꾸준히 주어집니다. 제대 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속가능한 나만의 '업'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은 과감히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현장실무에 대한 감각과 경험은 제대군인의 강점입니다. 더불어 배움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자체와 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사회제도 안에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혜택을 꾸준히 살펴보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스마트 금융서비스를 실현하다

금융서비스 산업

4차 산업혁명이 금융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핀테크라 불리는 혁신 기술과 금융의 통합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융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핀테크 시대를 선도하다” 핀테크 전문가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핀테크 전문가는 IT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예금, 결제, 대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핀테크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 개발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의 결제 및 송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킹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 마련,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전문분야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금융과 ICT가 융합된 분야이므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과 IT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분석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핀테크 전문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가자격은 없으나,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사회를 바꾸는 신기술 혁신” 블록체인 전문가

사회를 뒤바꿀 최신 기술의 하나로 블록체인이 조명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 제조·유통, 공공서비스 등 타 산업과 융합하여 신뢰성 확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전문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산업을 찾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 화폐가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직업으로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학자, 정보 보호 전문가 등이 있으며 주로 금융, 보안, 의료, 물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업무 성격에 따라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기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관련 자격 및 전공

블록체인 관련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아직 없으며 민간자격증으로 블록체인관리사(CBM)가 있다. 블록체인 전문가는 보통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 보호학, 암호학(수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댄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때, 절차가 까다롭지만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바뀌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는 이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영역에 따라 투자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자산 운용가, 금융 시장에서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리스크 매니저, 벤처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시장에 공개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는 투자 인수 심사원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전문가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소셜 네트워크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관련 자격 및 전공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관련 자격으로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자격이 있다. 보통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등의 학과를 전공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금융 빅데이터 전문가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공공 기관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 전문가는 금융산업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하며 데이터 수집 및 확보, 처리, 분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한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이론과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개선하려는 창의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국가자격으로 빅데이터분석기사가 있으며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데이터분석전문가,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등이 있다. 그 외 다양한 기관에서 빅데이터 관련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의 꽃을 피우다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과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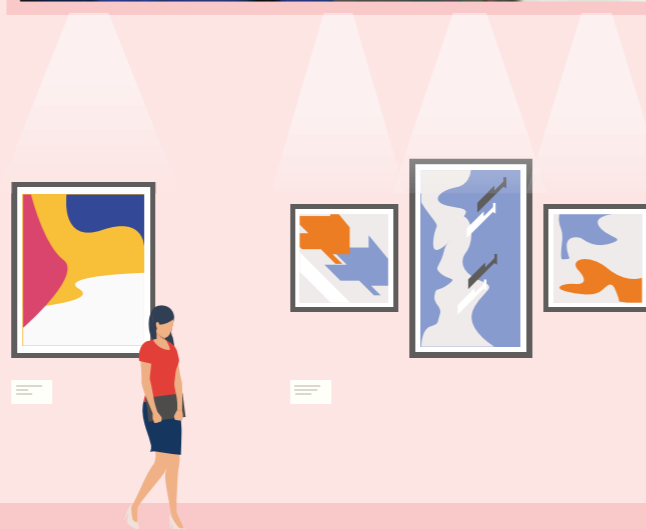
얼마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직무 만족도에서 '전반적 직무 만족도' 영역 1위를 차지한 직업으로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이 꼽혔다. 우아한 백조지만 실은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어 미술계에서 3D 업종으로도 꼽히는 큐레이터를 소개한다.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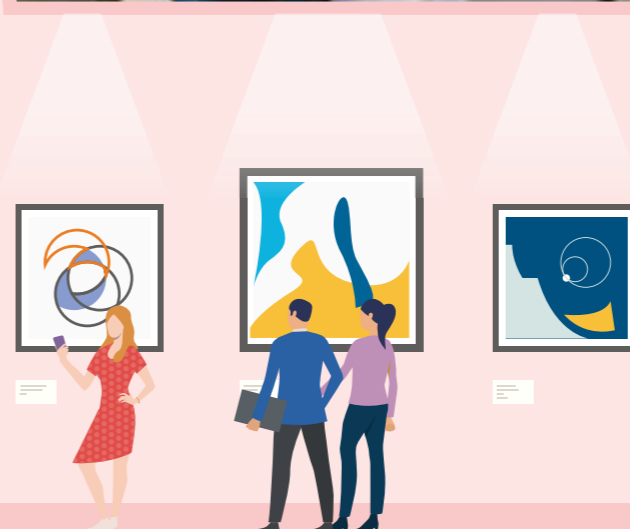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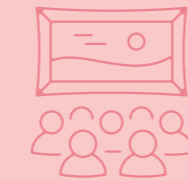
한국 | 2019 | 출연 박민영, 김재욱, 안보현, 박진주 등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은 <누나팬닷컴>이라는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한 미술관의 큐레이터인 주인공 성덕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아이돌을 두루 거쳐 현재 한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는 그녀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미술관에 새로 부임한 관장과 얽히면서 생겨나는 로맨스가 이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다. 성덕미라는 인물은 대외적으로는 똑 부러지게 전시를 기획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큐레이터지만, 사생활에서는 자신이 덕질하는 아이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모두 뽐내내는 본투비 덕후다. 반면, 새 관장인 라이언 골드는 성덕미와 정반대로 차갑고 까칠한 인물. 누구보다 열정으로 가득한 성덕미와 누구보다 차가운 라이언 골드가 만나 서로의 온도와 색이 입혀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배경이 미술관인 만큼 우리가 걸으로만 보는 화려하고 멋진 큐레이터의 모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뒷모습까지 큐레이터의 다양한 직업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큐레이터란?

우리말로 학예사라고도 하는 큐레이터 (Curator)는 보살피다, 관리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큐라(cura, 영어의 care)에서 유래한 단어로 처음에는 감독인, 관리인을 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관리자라는 뜻으로 발전하였다. 단순히 관리자가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자료에 관해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현대의 큐레이터는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를 담당하거나 교육 및 홍보 담당, 전시 관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세분화되어 있다. 1984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박물관법 제5조 1항은 큐레이터 제도의 의무적인 법적 적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박물관에는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큐레이터가 하는 일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거나 작품을 수집, 관리한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업무가 다르게 나뉘는데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 작품 전시를 기획하며, 이를 위해 작품을 선정하고 수집 후, 미술관의 공간과 작품의 수량, 주제를 고려해 전시의 방법과 형태 등을 결정한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박물관에 보관 중인 각종 실물, 표본, 사료, 문헌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것들을 토대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최근에는 IT 분야의 발달로 디지털 큐레이터라는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큐레이터 진로와 전망은?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학 박물관 등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으로 근무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큐레이터로 근무
- 상업화랑이나 독립큐레이터로 활동
- 보존과학업체, 지방의 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재 보존원 근무
-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교수로 진출

큐레이터 관련 학과와 자격증은?

- 학과 ▶ 고고학, 사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인류학, 동양화, 서양화, 조각, 도예 등 미술, 예술 관련 학과(학사 또는 석사 이상), 큐레이터학과, 예술대학원이나 미술대학원의 예술기획전공, 예술경영학과, 박물관학과, 미술관학과, 문화관리학과 등
- 자격증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수리 업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사 및 기능자 자격 취득

큐레이터에게 요구되는 적성은?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양식, 언어, 예술 등 문화 전반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품 및 전시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함께 창의력, 기획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전시 개최는 비즈니스적인 감각과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존원의 경우 역사에 흥미가 있고 유적, 유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함께 보존을 위한 악물 처리 등 화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세심하고 정확한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는 섬세한 손재주도 요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질은 바로 체력이다. 화려한 모습과 달리 힘과 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외로 잦은 출장이 있는 경우도 많아 체력관리는 필수다.



재테크 이것만은 기억하자!

1. 재테크는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지출 관리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하는 습관이 평생의 재테크를 좌우한다.
2. 월급통장은 입출금이 잦아 잔고가 별로 없는 통장이다. 금리를 더 주는 통장보다 입출금이나 송금할 때, 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더 유리하다. 월급통장 이자 1%보다 출금 수수료 1000원이 더 비싸다.
3. 대출받을 때 큰 도움이 안 되는 CMA 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중 은행 통장으로 발급해 평소 거래 실적을 쌓아두는 것이 좋다.
4. 수시입출금통장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 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 통장도 만들어 인센티브나 목돈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5.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하면 포인트가 올라가니 이 부분도 잘 활용하자.



똑똑한 통장관리 10년 직장생활의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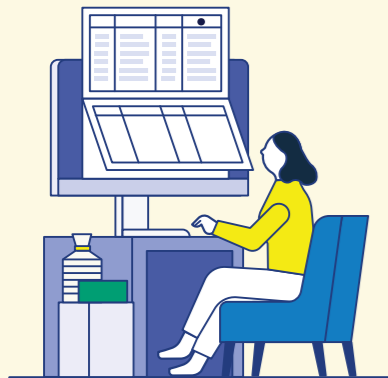
통장의 성격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장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쪼개어 관리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자산의 뼈대를 세우는 월급통장, 안전한 예금·적금 통장, 돈을 불리는 주식계좌,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청약, 보험, 연금까지 전략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재테크의 첫 단추, 월급통장



월급통장

인터넷 검색창에 '통장'을 검색해 보면 통장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뜬다. 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뺏아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도 있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통장도 있다. 상품이 많으니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수시입출금통장 관리의 핵심은 거래의 편리성과 수수료 면제다. 현금인출 수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 활용하고 수수료 혜택이 좋은 월급통장을 가입하는 것이다. 잘 활용하면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익숙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 게다가 한번 은행 앱을 깔고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쉽게 은행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자산 관리에 속도가 붙는다. 여러 은행이 선보이는 경쟁력 있는 월급통장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통장을 선택해보자. 월급통장은 적금이나 펀드, 대출 원리금, 보험료,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들을 자동이체 되도록 해두고 남은 돈을 매달 생활비로 사용한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연금저축



적금 / 주택청약저축 / 연금저축

예금·적금은 이자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초저금리 시대의 적금 금리는 약 1% 수준이다. 1.4%인 적금 상품에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부어도 이자는 4만 원이 채 안 된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들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수많은 투자 성공담에 흔들리기 쉽지만 예금과 적금은 꼭 필요하다. 왜 그럴까? 이자는 적더라도 목돈을 잃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적금은 하루라도 빨리, 예금은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리스크가 있는 투자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함께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분양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약 통장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이 크다. 1년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 240만 원까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역시 노후대비와 함께 세액공제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라!



비상금 통장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퇴사 등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부자들은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금 방편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목표를 세워 차곡차곡 준비했던 적금, 보험, 펀드나 주식 등을 손실을 보며 해약·매도하곤 한다. 수년간 노력한 재무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맞게 될 유동성의 순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장 쪼개기다. 비상금 통장은 만일의 사태에 소득 활동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통장이다. 이 통장이 있으면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팔지 않아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꼭 마련해두어야 할 통장이지만, 문제는 돈이 부족해지면 이 통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쏙쏙 빼는 바람에 저축이나 투자를 헛수고로 만들 수 있으니 원래의 목적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도록 뜻을 박는다. 또 비정기 지출 통장도 필요하다.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이사를 준비할 때, 형제가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환갑을 맞았을 때 등 한 달 생활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비용을 써야 할 때가 생긴다. 이런 지출들은 미리 예상해 1년 치를 합산한 뒤 12로 나뉘 매달 통장에 넣어두면 비정기 지출이 많은 달에 당황하지 않는다.



내 자산 한눈에 보고 관리하자!

계좌정보통합서비스 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서비스(www.payinfo.or.kr)에서는 내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예금이나 보험을 조회하고 숨어있는 돈은 바로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니 자산 관리에 유용하다. 또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도 있다.



전통주 소물리에가 있는 '전술가'



멕시코 전통술과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버뮤다 삼각지'

다국적 음식의 향연, 용리단길 & 전통주

신용산과 삼각지 사이, 큰길에서 벗어나 작은 골목 사이를 따라가다 보면 주택 건물들 사이로 트렌디한 외식 공간들이 들어섰다. 기존 주택들을 개조한 음식점들을 하나하나가 튀어 보이기보다 골목에 잘 녹아들어 골목길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바로 용리단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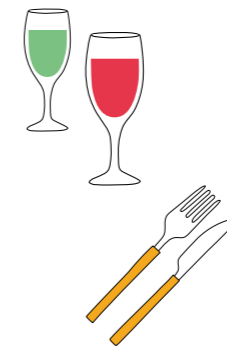


골목마다 숨어있는 맛

요즘 떠오르고 있는 용리단길은 사실 호젓한 거리에 낮은 주택들과 작은 가게들이 웅기중기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자동차 한 대 정도가 지나다닐 정도로 넓지 않고 한산했던 동네 근처에 대기업 사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골목길마다 핫한 음식점들이 하나둘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용리단길이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이제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사람들이 찾는 핫한 골목길이 되었다. 불과 4년 정도 만에 일어난 변화다. 그래서일까. 이 근처를 오랜만에 찾은 이들은 상전벽해라고 하기도 하고, 새롭게 형성된 핫플레이스가 궁금해 처음 찾은 이들에겐 좁은 골목 주택가 사이사이 숨은 다양한 공간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는 미로 같은 동네가 되기도 한다. 30년 넘게 신용산 뒷골목에 자리 잡고 한 자리를 지켜온 터주대감 같은 오래된 노포부터 정갈한 파인 다이닝, 어느 나라 국적인지 알기 어려운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한 음식점이나 소소한 소품들을 파는 편집샵까지 모두 골목 사이에 숨어 있는 용리단길은 그래서 더 특별할지도 모른다.

전통주 소물리에의 한 상

용리단길에는 유난히 다양한 국적의 외식공간들이 많다. 흔하게 접하는 서양 가정식부터 베트남이나 중국, 남미까지 즐비한데, 이 다양한 국적의 음식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만나보고 싶다면 '전통주와 어울리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용리단길을 찾아가 보자. 그 첫 시작지로 우리나라



전통주 소물리에가 운영하는 '전술가'를 추천한다. 단순히 소주나 막걸리 정도만 알고 있던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주는 곳이다. 맛있는 '전'과 우리 '술'이 있는 '집'이란 상호명 그대로 전통주를 전문으로 다루는 소물리에가 직접 지역별 명주를 선별해서 한국 보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와인바에서 와인만 마시고 위스키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듯이 오직 전통주만 다루는 이곳에는 막걸리, 약주, 청주, 증류주 등 총 35종의 전통주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그 리스트가 변경된다. 여기에 육전과 새우 감자전, 오리말이 리조토 등 다양한 음식 메뉴들을 갖추고 있어 술의 유형이나 그 날의 날씨, 고객의 기분에 따라 전통주와 음식 페어링을 추천해준다.

태양의 맛과 멋

우리나라 전통주로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태평양 반대편, 강렬한 태양 아래 그만큼 독한 전통주와 맵고 중독적인 음식들로 유명한 멕시코를 만나볼 차례다. 걸모습부터 작렬하는 태양을 떠올릴 법한 강렬한 주황색의 '버뮤다 삼각지'가 바로 그곳으로 상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버뮤다 지역에 위치한 미스테리한 삼각지대와 매장이 위치한 삼각지의 지역명을 센스 있게 조합한 이곳은 레트로한 멕시코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외장만큼 내부 역시 자유롭고 이국적이며 트렌디하다. 이곳에는 멕시코하면 떠오르는 데킬라부터 중남미의 강렬함이 떠오르는 다양한 칵테일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멕시코 향신료를 더한 풍미가 있는 음식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먹기 좋게 수비드한 립과 한국적인 맛을 접목한 퀘사디아, 그리고 엔칠라다, 타코 등 다양한 멕시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 스파이시한 향신료 맛이 느껴지는 음식들을 한가득 차려 놓고 목을 축이는 술과 함께 하고 싶다면, 지금은 쉽게 가기 어려운 곳이 된 멕시코 휴양지 칸쿤이 떠오른다. 그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햇빛과 바람을 즐기는 기분일까. 이 밖에도 프랑스산 와인과 가벼운 프랑스 요리들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 '루블랑'부터 다양한 수제 막걸리를 만날 수 있는 'NOOK', 중국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꺼거', 베트남 쌀국수와 맥주 한 잔을 맛볼 수 있는 '호프'까지 용리단길에서 각 나라의 감성과 한국적인 골목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정취를 누려보는 여행을 떠나보자. ☺

오타, 그때는 웃지 못했지만!



선택과 결정

라이밍이다

Timing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이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만족감을 얻고, 자기 확신을 가져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취업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택과 결정의 타이밍을 알고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한다.



이 책은!

내 삶의 주체는 '남'이 아닌 '나'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꼼꼼하고 철저하게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으로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 정작 고민해야 할 사항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인생의 답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은 내 안의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때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자기 확신을 만들 수 있다.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타이밍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적절한 시기에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성실함과 노력보다는 선택과 결정의 타이밍이 성공과 부를 가져다주는 시대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과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선택과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2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45



3월의 책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최훈 지음 | 밀리언서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과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2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기회를 만들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타인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만족감을 얻고, 자기 확신을 가져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선택과 결정의 순간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5가지

1 기회

이 선택이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다주는지 생각해보라.

2 비용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지 판단해보라.

3 영향력

이 선택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라.

4 시기

나의 선택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지 판단해보라.

5 나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한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큐레이션

1 머릿속 원숭이 죽이기 | 복잡한 생각을 없앨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는 있다.

2 결정저울 파악하기 | 단 1%라도 나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을 선택한다.

3 팔랑귀 예방법 |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신념을 세운다. 나의 가치관과 주관을 가져야 내가 주인이 된 선택이 가능하다. 잠시 멈춰서(pause) 생각하고(thinking) 천천히(slowly) 결정하라.

4 프로결정력의 말하기 | 불확실한 말 습관이 결정 장애를 낳는다.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5 프로결정력의 체크리스트 | 선택과 결정 앞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 달의 자격증 & 센터 소식			
SUN	MON	TUE	WED
채용공고는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www.vnet.go.kr 에서 확인		3.1 삼일절 	2 산업기사1회 필기시험 ~13일
6	7 기능사2회 필기접수/ 제26회 기술사 면접접수1차 ~11일	8 3·8 민주여거 기념일	9 대통령선거일
13	14	15 3·15 의거 기념일	16
	부 위탁교육과정 설명회	강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전 온라인 취업워크숍 북 위탁교육 업무협약
20 기능사1회 실기시험 ~4.6일	21 제27회 기술사 필기접수 ~24일/ 제8회 공인노무사 필기접수 ~25일	22 제26회 기술사 면접접수2차 ~25일	23 전 순회상담 계몽 부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27 기능사2회 필기시험 ~4.2일	28 기사2회 필기접수 ~31일	29 산업기사2회 필기접수 ~4.1일	30 강 변화관리 워크숍 서 여성제대군인 워크숍 인 군부대 순회상담 해방2사 광 멘토멘티 만남의 날

자격증 시험 일정(3월 1째주~3월 5째주)			
산업기사1회 필기시험	3월 2일~13일	기능사1회 실기시험	3월 20일~4월 6일
1회 한글속기 실기접수	3월 3일~9일	제127회 기술사 필기접수	3월 21일~24일
기사1회 필기시험	3월 5일	제31회 공인노무사 필기접수	3월 21일~25일
기능사2회 필기접수, 제126회 기술사 면접접수 1차	3월 7일~11일	제126회 기술사 면접접수 2차	3월 22일~25일
경매사/관세사1차 시험	3월 12일	1회 한글속기 실기시험	3월 26일
가맹거래사/ 산업안전(보건) 지도사1차 시험	3월 19일	기능사2회 필기시험	3월 27일~4월 2일
		기사2회 필기접수	3월 28일~31일
		산업기사2회 필기접수	3월 29일~4월 1일

강 강원 경 경남 광 광주 구 대구 남 경기남부 부 부산 북 경기북부 서 서울 인 인천 전 대전

THU	FRI	SAT
3 1회 한글속기 실기접수 ~9일	4	5 기사1회 필기시험
10 서 위탁교육과정 설명회 북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11 광 취업워크숍/ 멘토 특강	12 경매사/ 관세사1차 시험
17 부 기업간담회	18 구 미래설계 워크숍 북 제대군인 멘토 워크	19 가맹거래사/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1차 시험
24 인 남 시니어 워크숍 광 경 기업간담회 서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 코엑스 ~26일	25 서해수호의 날	26 1회 한글속기 실기시험
31 북 시니어 워크숍	4. 1	4. 2

제대군인지원센터 행사		
*인천 24일 시니어 워크숍 30일 군부대 순회상담 (해병2사)	*경기북부 10일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16일 위탁교육 업무협약 18일 제대군인 멘토 워크숍 31일 시니어 워크숍	*대전 16일 온라인 취업워크숍 23일 순회상담(계룡)
*강원 15일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29일 변화관리 워크숍	*서울 10일 위탁교육과정 설명회 24~26일 프랜차이즈 서울창업박람회(코엑스) 29일 여성제대군인 워크숍	*부산 14일 위탁교육과정 설명회 23일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경기남부 24일 시니어 워크숍	*대구 18일 미래설계 워크숍	*광주 11일 취업워크숍/멘토특강 24일 기업간담회 30일 멘토멘티 만남의 날

3월 이 달의 자격증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기기를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자격 제도이다. 자격 취득자는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담당할 수 있다. 설치된 전기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인력과 전기제품을 제작하는 인력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나 새로운 신기술 등의 등장으로 상위의 기술수준 습득을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제대군인 위탁교육

국가보훈처에서는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하여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45개 과정

3~4월 개강 과정		
과정(일정)	교육기관	비고
드론조종자 (3.2~3.22.)	(주)허니	광주 광산 (456-3555)
직업상담사 (3.14.~4.28.)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남 계룡 (551-0202)
제과제빵 (3.28.~5.30.)	한국제과학교	서울 영등포 (843-6110)
지게차운전 (4.1~4.28.)	동부산 중장비학원	부산 부산진 (746-8440)
에너지관리 (4.4.~6.15.)	한국열관리 냉동기술학원	대전 동구 (256-6858)
ISO국제심사원 (4.8.~5.30.)	(주)코마스인증원	부산 해운대 (755-0908)
전기기능사 (4.13.~8.17.)	제일전기 직업전문학교	광주 북구 (523-2829)
전기기능사 (4.18.~6.10.)	대양전기 직업전문학교	서울 도봉 (907-7114)

※ 연간 일정(과정) 홈페이지 참고

움트는 봄 마음도 티우다

Travel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봄이 왔다. 우리도 움츠렸던 몸을 기지개 펴고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을 맞으러 나갈 때가 됐다. 하지만 아직 사람들 많은 곳이 조심스럽다면 비대면으로 여행할 수 있는 해안도로 여행은 어떨까.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은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에 이르는 해안도로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남해안의 그림 같은 해안 도로들이 선정되어 있다. 고흥의 '거금 해안경관길'과 '여자만 갯가길'을 비롯해 여수의 '여수밤바다로' 뿐만 아니라 '이순신 호국로'와 '남면해안도로', '고성만해지개길', '평인노을길' 등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해안도로들이 포함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하며 봄기운을 흠뻑 느끼기에 좋다. 자 이제 떠나보자.

남해안 해안경관도로15선 전남 고흥~경남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중253.7 km

http://www.mdit.go.kr/USR/NEWS/m_71/dl.jsp?d=95081785



Exhibition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가 3월 24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 참가에 추가해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무인, 배달, 로봇, 간편식 등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제대군인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창업지원팀이 현장에서 협업할 예정으로, 02-3480-6861로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uiz

독자퀴즈

2월호 '선배의 비밀노트'에서 멘토가 추천한 자격증이 아닌 것은?

- ① 조경관리사 자격증 ② 보세사 자격증 ③ 물류관리사 자격증 ④ CPIM자격증

3월20일 까지 퀴즈 정답 이름 주소 연락처를< 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2022년 2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
김태수 (부산 연제)
남기연 (전남 광양)
이준규 (인천 중구)
이행기 (충남 계룡)
정흥기 (경남 창원)

※ 당첨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6·25 전쟁영웅

3월



대한민국 육군 준장 **강두형** 1930.3.12. ~ 1977.3.28.

강두형 준장은 1930년 3월 12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 1948년 육군사관학교 제7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6·25전쟁에 참전한 그는 제2사단 제17연대 제2대대장으로 저격능선전투를 수행했다. 1952년 10월 15일, 강두형 소령(당시 계급)은 전날 중공군의 공격으로 빼앗긴 저격능선 상 A고지를 공격하여 재탈환 하였으나, 그날 밤 적군의 반격을 맞아 8시간 밀집 방어를 시도하였지만 다시 빼앗겼다. 이에, 강두형 소령은 예비 중대의 1개 소대를 차출해 반격에 나섰지만, 적의 집중 사격을 받아 분산되고 소대장마저 부상을 입자, 직접 증원 소대를 지휘해 최전방에서 부하들을 독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의 소총과 포탄 및 박격포 포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적군과 교전하여 큰 피해를 입혔고 강 소령의 몸을 아끼지 않는 지휘, 용기와 리더십에 힘입어 대대는 16일 새벽 A고지를 재탈환하였다. 강두형 준장은 저격능선전투에서의 공적으로 1953년 9월 美 은성훈장을, 이에 앞서 6·25전쟁 중의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나를 따르라
한치도 물러설수없다
저격능선을
기필코 활환하라



저격능선전투 1952.10.14 ~ 11.24

저격능선전투는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강원도 김화에서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과 벌인 전투로 백마고지전투와 더불어 6·25전쟁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고지전으로 꼽힌다. 1952년 10월 중공군이 전초진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격하자, 제한된 규모의 병력으로 제한된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는 '쇼다운 작전(Operation Show Down)'이 개시되었다. 이 공격에서 국군 제2사단은 첫날 공격에 성공하여 저격능선을 탈취하였지만, 오성산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중공군 제15군이 바로 그날 밤부터 역습을 감행하여 끈질기게 대항함으로써 장장 6주 동안에 걸친 공방전을 치르게 된다. 전투는 주간 작전에서 국군의 우세한 화력을 바탕으로 중공군을 제압하면, 중공군의 야간 역습으로 대응하는 양상이었다. 결국 공방전이 되풀이되다가, 11월 24일을 기하여 국군이 저격능선을 장악하면서 김화 ~ 금성 간의 도로망 확보와 군사분계선 설정 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저격능선전투에서 전사한 국군과 유엔군을 추모하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안리에 저격능선 전투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